

고객만족 100% 도전하는 식품·공산품 포장지 생산 전문기업, 일진팩

일진팩(대표 전준호, 이하 일진팩)의 시작은 98년으로 거슬러 전준호 대표가 처음 포장업체에 발을 내디딘 때로 올라간다.

전 대표는 26세의 나이에 처음 갈치 포장 회사에 사원으로 입사했다. 처음 그가 회사에 입사할 때까지만 해도 좋은 기계로 높은 품질의 포장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10년 동안 근무를 하며 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는 내용물에 맞는 포장지를 디자인하고 설계

하는 것이다.

고객들의 소중한 제품이 포장지가 잘못되어 갈치가 상하는 경우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이에 고객들이 포장재로 인해서 안 좋은 일을 겪지 않도록 2009년 설비와 그동안의 노하우를 가지고 지금의 회사를 창업하여 현재는 인쇄기 그라비아 인쇄기(Gravure Print) 그리고 무용제(Solvent Free) 합지(Lamination) 드라이머 2대와 가공기 7대(스탠드제대기, 지퍼



▲ 일진팩 본사 전경

제대기, 지퍼스탠드제대기, 각 1대, 삼방제대기, 이방지퍼제대기 각 2대)를 운영하고 있다.

고객 맞춤형 제품 포장의 비결

일진팩은 이러한 기계를 통해 다양한 형태·용도의 식품·공산품 포장지를 전문 생산하는 기업으로 고객들이 원하는 포장지를 불량 없이 빠르게 처리해 290여 개의 거래처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거래처를 보유할 수 있었던 비결은 제품 포장의 모든 프로세스를 정교하게 시스템화 놓았기 때문이다.

전준호 대표는 “인쇄, 합지, 가공을 전담하는 공장을 갖추고 있어, 고객이 원하는 맞춤형 포장지를 단시간 내로 제조할 수 있는 것이 일진팩만의 차별화된 강점이다”며, “앞으로는 어떤 의뢰든 동판만 준비되어 있다면 단 3일이면 상담부터 유통까지 끝내는 진보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고 말했다.

신생업체나 소규모 업체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

일진팩의 또 다른 강점은 바로 접근성에 있다. 신생업체나 소규모 업체들의 경우 제품을 생산했음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큰 규모의 포장업체에게 선뜻 일을 맡길 수 없다. 일진팩은 그런 업체들의 상담부터 디자인, 동판제작, 인쇄, 합지, 스테팅, 가공, 유통 등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과정을 빠른 시일 내로 처리해준다. 포장 타입 또한 용도와 형태에 맞게 삼면형, T면형, T/M면형, 지퍼형, 스탠드지퍼형, 자동롤 등 대한민국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포장지를 무리 없이 생산할 수 있다.

“일진팩을 찾은 주 고객들은 대개 제품을 만들어 출시를 해야 하는데 포장지를 어떤 것으로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알 수 없는 신생업체나 소규모 업체들이다. 제품은 그들의 소중한 결과물이자 유일한 일터이기에 상담부터 유통까지 포장지 제작에 많은 정성을 기울인다”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기업을 만들고 싶다는 전준호 대표. 그런 그도 10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물론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럴 때마다 새로운 고객을 찾기 위해 영업을 하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마트에 진열된 일진팩이 가공한 포장 제품을 보며 초심을 다 잡는다고 했다.



▲ 일진팩 전준호 대표이사

자체 개발한 기술로 특허까지 출원

일진팩은 연포장 분야에서 포장재를 무려 20여

년간 생산하며 축적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2018년 비전커팅기를 자체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일진팩의 비전커팅기는 일본 회사 도다니에서만 구현되던 기술을 개량한 것이다. 일본 도다니에서만 구현되던 리얼 라운드 커팅을 일본보다 한 단계 진보된 두 대의 비전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기계는 비전이 두 대 달려 있어 좌우 꼭짓점을 잡아가면서 자를 수 있는 제품으로 국제 특허 및 국내특허를 출원한 상태이다”. 다만, 전준호 대표는 “비전커팅기의 완성도는 현재 80% 수준으로 뛰어난 기술력과 별개로 운영 및 조작부분을 개선해야 한다”라며,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을 통해 성능을 보완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사진 1] 인쇄공장의 그라비아 인쇄기



[사진 2] 합지공장의 논슬벤드라이 머신



[사진 3] 가공공장의 삼방제대기와 인쇄물



친환경 포장재 생산 요구에 대응

전준호 대표는 환경에

[사진 4] 일진팩의 생산 제품군



대한 이슈에 요즘 관심이 많다. 현재 포장재 시장에 있어서 친환경 포장재 생산이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다. 각종 환경규제들이 새롭게 등장하거나 강화되고 있어 이미 대기업 사이에는 인쇄, 후가공 분야의 설비들이 친환경으로 대체되는 추세이기에 일진팩 또한 모든 포장 업체처럼 환경 규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큰 기업들의 경우는 환경을 생각해 포장지를 제작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제품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눈에 띄는 디자인을 할 수밖에 없다.”

현재 일진팩이 탄소중립을 위해 무(無)용제 합지 드라이 머신 두 대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다. 해당 드라이 장비는 기존 솔벤드라이 장비

가 아닌 논솔벤드라이 장비로 용제 도포량이 적어 솔벤드라이에 비해 접착제는 1/3 가량, 전기료는 약 80% 절약할 수 있어 자원 낭비가 덜하다.

포장협회, 탄소중립으로 향하는 지름길

혼자 잘사는 방법보다 다 같이 잘 살기 위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혼자보다는 여럿이 같이 모여 고민하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에 일진팩은 지난 8월 한국포장협회의 신입회원으로 가입했다.

전준호 대표는 이에 대해 “한국포장협회가 포장 분야에서 가장 크고 가장 앞서가는 곳이라고 생각하기에 신규 회원사로 가입을 하게 되었다”며, “원단, 동판, 잉크 기술이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 협회가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보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내·외 여러 포장 관련 정보를 공유해서 탄소중립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가입을 계기로 포장협회의 여러 분과의 도움을 많이 받아 연포장 분야에서 선두 주자로 도약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